

종합

호남은하 민자 전환은 지역건설사 제안 때문?

보성건설, 인수위에 사업계획 내

보성건설이 영산강과 영암호·금호호를 연결하는 호남은하~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연계 아이디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명하면서 민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J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소속의 보성건설(주) 관계자가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를 찾아가 호남은하에 영암호~금호호를 연결하는 '물류+레저+문화'를 만들어 양대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의 안을 설명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도는 22일 호남은하를 민자로 할 경우 ▲참여 기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어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같은 입장을 공식 천명해 정부 투자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보성건설 측이 민자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성건설 측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호남은하와 'J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민자 참여 의사로 인해 이 당선인이 민자를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연립TF장은 "민자로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있

어서 검토하라고 한 것 뿐"이라며 "보성건설에서 제안서를 내면 타당성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성건설 측은 "수로 하나 가지고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으므로 호남은하를 영암호·금호호와 연결해 기업도시 중심으로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성 측은 "기업도시와 영산강 운하가 연결되면 국제적인 환경 레저도시 및 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한 외부 투자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성건설이 인수위에 낸 '제안서'

한국제품 20개국서 114건 수입 규제

한국 제품은 세계 20개국에서 114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발표한 '2007년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현재 한국산 제품이 받는 수입 규제 조치 건수가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14건으로 전년도 11건보다 3건 증가했으며 이중 미국 등 선진국이 4건, 중국과 인도 등 개

는 ▲2월 '대운하 토론회'→▲3~4월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제안서 제출→▲4월 사업 제안서 심사 및 환경·재해 영향평가→▲6월 대운하 특별법 제정→▲2009년 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승인→2월 착공 순으로 돼 있다.

또 서남해안기업도시, 남악신도시, 무안·목포·신안의 S프로젝트와 연계한 호남은하 건설과 영산강~영암호~금호호간 13km에 도 폭 75m·깊이 6.1m의 연결수로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들이 22일 오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조성위 폐지방침에 따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문순태, 김성윤, 임나령, 노은희, 천득염 위원이 참석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무안·신안 갯벌 도립공원 만든다

전국 최초... 내달초 지정 탐방로 등 관광자원 개발

무안과 신안 갯벌이 전국 최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 갯벌과 신안 증도 갯벌 등 서해안 2곳의 갯벌이 늦어도 2월 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무안 갯벌은 자연상태 해안선과 염생식물(염분 또는 암염이 있는 물가와 지대에서 자라는 해조류 등의 식물) 군락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곳으로 최근 탐사 르 습지로 등록됐다.

신안 증도 갯벌은 조류에 의한 갯벌의 형성과 태평양연 등 해양 문화자원이 산재돼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무안 갯벌과 신안 증도 갯벌의 면적은 각각 35.59km, 11.51km이며 도립공원 지정 면적은 총 47.10km이다.

전남도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전남 서남해안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우선 무안과 신안 증도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갯벌도립공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갯벌의 관광화를 위해 갯벌 탐방로와 체험장을 신설하고, 훼손지와 경관을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해 개발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촉 일방 폐지 안된다"

조성위원회 유감 표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폐지방침에 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조영택) 민간위원들은 22일 오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성위 폐지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성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를 역할·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신 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의미를 고려치 않은 채 행정능률 저하 등 일방적 논리로 없애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성위는 "새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며 "조성위를 폐지키로 한다면 국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yunfoot@kwangju.co.kr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없앤다

환경부 개선안 마련

환경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업계와 1

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해 시행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회용품 보증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확보해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이컵을 회수하는 설비와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 재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pig.

콩·김·시금치 먹으면 치매 안걸린다

전남대병원 비타민 B군 -치매 상관관계 규명

비타민 B군의 결핍과 치매 발병의 상관관계가 대학병원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22일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치매연구팀(팀장 윤진상 교수)의 '비타민 B군 결핍과 치매 발병과의 관계' 연구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B군 수치가 낮은 노인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발병률이 3~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연구팀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노인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미밥과 콩, 버섯, 김, 장어, 우유, 시금치, 호두 등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 광산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한 비타민 B군 수치 조사와 치매발병 여부를 비교, 분석해 밝혀졌다.

1차 조사에서 치매가 없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2차로 조사해 치매가 발병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 비타민 B

군 등 수치가 치매발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의 제 1저자인 김재민 교수는 "비타민 B군이 결핍됐을 때 기억력이 감소한다는 주제의 논문은 기존에도 일부 있었지만 '비타민 B군 결핍과 치매 발병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논문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유명학 국제학술지인 '신경학·신경외과학·정신과학'에서 임상적 가치가 높은 논문으로 선정, 해외언론에 배포되는 '이달의 보도논문'으로도 채택됐다.

안현희기자 ahj@kwangju.co.kr

한국 민간 원유 재고 1년새 절반이상 감소

한국의 상용 원유 재고가 지난해 12월 고유가로 인한 원유도입 감소 등에 영향받아 한해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유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도입이 상당량 줄어든 반면 동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정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공사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 에너지, GS 칼텍스, S-O일, 현대 오일뱅크 및 SK 인천정유 등 5대 정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는 지난해 12월 1천164만배럴로 한해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이는 지난 27개월래 최저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유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도입이 상당량 줄어든 반면 동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정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원유 도입이 당분간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면 정유사들이 몇 달 안에 정유량을 지금보다 줄일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Sanhangan (산행안내) real estate listings for January 24th, 26th, and 27th, including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agencies.

Real estate listings for January 29th, 30th, 31st, and February 2nd, 14th, including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agencies.

광주일보 (Gwangju Ilbo)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listings for Sangmuwori (상무우리) and Sinokwon (신옥원), including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agencies.

Real estate listings for Daeduboson (대지부동산), including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agencies.

Real estate listings for Geomdang (금당부동산), including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agencies.